농촌경제 제44권 제4호: 77~105 (2021.12.)

조사논문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농촌재생 키워드 연구

최문형*

Keywords
농촌재생(rural regeneration), 농촌지역(rural area), 지역재생(regional regeneration),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 빅데이터 분석(big data analysis)

Abstract
The discussions on rural regeneration have been incresed. Recently, rural areas have suffered from various problems such as the outflow of the working-population, population aging, and old aging infrastructures. As a result, rural regeneration has emerged as an urgent social issue. However, academic approaches to rural regeneration are relatively less active than in urban revitalization. Some previous research papers have pointed out these problems and called mentioned the need for rural regeneration. However, there have not been sufficient studi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plores the current discussions related to rural regeneration and the issues addressed importantly. This analysis identifies changes between 2016 and 2020. In 2016, the keywords related to the government's rural revitalization project and renewable energy project mainly appeared in the area of rural regeneration. However, in 2020, the keywords related to self-sustaining economic growth and self-reliance in rural areas became important. Of course, the role of government in rural regeneration remains an important issue. At the same time, the roles of rural areas and residents are emerging as a new essential issue.

차례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설계
4. 분석 결과
5. 결론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 교신저자. e-mail: cmh9747@naver.com.

1. 서론

최근 농촌재생에 대한 논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1년의 주요 농정과제 중 하나로 '농촌재생'을 제시하였고(이명기 외 2021), 정책적으로도 농촌 지역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2021)는 농촌공간계획에 기초한 농촌재생 뉴딜을 추진하며 정주여건 개선과 귀농·귀촌 지원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도 한다. 또한 지자체와 LH, 연구기관 등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재생 사업의 선도적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이미홍 외 2021).

이처럼 농촌재생의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현실과 달리 학술적인 차원의 접근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일부 선행연구가 농촌재생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농촌지역의 주거재생에 대한 논의(송길호 2014), 농촌재생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정준용 외 2014), 국내외 사례연구(이태겸·정남식 2019; 윤철재 2021)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상대적으로 우리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농촌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와 그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는 접근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최근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현재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 고령화, 공동화 현상 등을 겪으면서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생의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시에 농촌은 농업을 비롯한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지역주민들의 생활터전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팜의 보급, 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매, 귀농귀촌 등 새로운 지역 활성화의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농촌지역을 둘러싼 이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파악과 관련 정책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농촌재생과 관련해 언론에서 어떠한 이슈가 공유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최근 농촌재생에서 어떠한 이슈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논의의 흐름은 어떠한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접근은 농촌재생에 대한 정책 정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확인하는 데 적합하며, 보다 적시성 있는 현황 파

악을 통해 향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초석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농촌재생 관련 이슈를 확인하고자 뉴스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빈도 분석과 단어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CONCOR 분석 등을 실시한다.[1]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 서론에서 연구 배경 및 목적 등을 설명하고,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 농촌재생 및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이론적 논의, 그리고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3장 연구설계에서는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제4장 분석 결과에서는 실증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제5장 결과에서는 결과에 대한 요약 및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농촌재생

농촌재생에 대한 정의 및 유형, 특징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접근은 국내에서는 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농촌재생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최근에야, 정책적 차원에서 활성화되며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학술적 접근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정의보다는 정책적·실질적 차원에서의 활용이 그나마 최근에서야 확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재생이라는 큰 틀에서부터 농촌으로 범위를 좁히며 농촌재생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지역재생은 “쇠퇴한 지역이 지니는 사회·경제 및 물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성화하는 것을 목표”(이소영 외 2012: 25)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즉, “쇠퇴와 침체에 따른 사회·경제·물리·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정책목표를 지니고 지역 스스로 지역단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적 대응전략”(최종희 2013: 22)을 지역재생으로 볼 수 있다.

---

1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해 빅데이터 솔루션인 텍스톰(TEXTOM)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유씨넷(UCINET)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3. 연구설계의 각주 2로 제시한다.

이러한 지역재생의 일환으로 다양한 지역의 재생유형에 대한 정의가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은 "인구학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쇠퇴한 지역에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활성화시키는 도시계획적 접근"(이진희 외 2020: 25)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농촌재생의 경우 공간적 범위의 차이가 있을 뿐 낙후되고 쇠락한 지역의 문제를 개선하고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맥락을 지닌다. 따라서 농촌재생 역시 "인구감소, 고령화, 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을 재활성화하는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때 농촌은 법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장 제3조 5에 따라 읍·면의 지역 또는 그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김정원(2010 :9)의 견해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장정책은 중앙정부의 하향식 개발을 지향하였고 이 때문에 지방, 특히 농촌의 자생적 역량을 키우지 못했다. 따라서 내생적 발전 방식을 통한 농촌재생을 통해 농촌이 스스로 지속가능하게 성장해야 한다.

한편 농촌재생에 대한 논의는 학술적인 차원보다 정책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보다 장기간·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따라서 관련 법적·제도적 논의에 대한 확인이 유용할 수 있다. 먼저 농촌지역의 개발 및 재생과 관련된 법률은 매우 다양하며 그중에서도 「농어촌정비법」은 농촌 발전 및 개발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으로, 선행연구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농촌재생에 대한 총괄법률의 제정이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한다(정준용 외 2014). 해당 법률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분산마을의 정비사업 등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인프라 정비·확충, 농어업인 등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 사업 등이 정의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농촌재생 영역은 인프라의 개발 및 개선, 마을 정비, 농어촌 관련 산업의 개발 및 지원 등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이 될 수 있다.

2.2.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농촌지역, 특히 농촌재생과 관련된 전국적 단위의 통계자료 구축이 미흡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논의의 시도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현시점의 농촌 현황과 농촌재생에 대한 이슈를 적시적으로 파악하는 데 의의를 지닐 수 있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의미연결망 분석, 언어 네트워크 분석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기되기도 하며,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를 형태소 단위로 구분하여 단어 간 관계 및 특정 의미 있는 이슈들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텍스트 네트워크의 분석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연구주제와 핵심연구주제, 현황 등에 대한 거시적 조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핵심주제와 하위주제의 관련성, 주제의 확장 영역 등 미시적 조망이 가능하고, 연구결과의 시각화를 통해 직관적 지식구조를 탐색 가능"(박찬숙 2019: 14)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통계자료의 구축이 미흡한 상황에서 비정형 데이터의 가공·분석을 통해 사회 이슈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변화를 탐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의 장점을 찾을 수 있다.

이에 지역재생 및 개발, 현황 분석 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텍스트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요 이슈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박상훈·이희정 2018; 이호 2018; 손용훈·김용진 2019; 원지영·박경열 2021).

이처럼 지역연구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의 접근이 지속되며 비교적 최근의 이슈를 꾸준히 탐색해 나가는 가운데, 농촌재생과 관련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의 적용 및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농촌 역시 국토의 일부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며, 동시에 인구 감소, 고령화, 공동화 현상, 귀농·귀촌의 증가, 온라인 상품 판매 및 스마트팜의 보급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 등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곳으로서 점차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해 최근의 이슈와 변화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은 향후 농촌재생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 동안 구축된 뉴스자료를 활용하여 농촌재생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키워드들 간의 의미 있는 군집과 이슈는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였는지 텍스트 네트워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2.3. 선행연구

농촌재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특히 학술적 차원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정책적·실무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뉴딜정책과 맞물려 농촌을 비롯한 지방의 소규모 지역의 재생 및 활성화가 강조되면서 농촌재생의 이슈화가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술적 차원에서의 접근 또한 다양하게 시도된 바 있다.

이미홍 외(2021)의 경우, 농촌지역의 맞춤형 지역재생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농촌재생의 사례를 분석하여 마을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교육, 로컬푸드, 의료복지 등과 연계하여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모델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살림마을 모델의 경우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등으로 공동화되는 농촌지역의 교육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로컬푸드 생산유통마을 모델, 의료복지마을 모델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와 고령 주민 케어 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는 정책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노후화되고 낙후되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지닐 수 있다.

김정섭 외(2011)의 경우,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록 해당 연구는 농촌재생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지는 않으나, 본 연구의 농촌재생 정의(“인구감소, 고령화, 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을 재활성화하는 것”)와 일부분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로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연구 결과, 2000년대 농촌 활성화 정책은 정책 외연 확대와 다양화, 내생적 발전론의 적용이라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증대, 정책사업 내용의 다양화, 농촌지역의 내생적 발전 중시 등의 특징은 농촌지역의 활성화 정책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해당 연구가 수행된 후부터 약 10년이 흐른 지금, 농촌 활성화 정책의 변화 흐름을 탐색하는 보완적 연구의 필요성 또한 제기될 수 있다.

그 외에도 농촌재생과 관련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농촌재생 사례 연구(이태겸·정남식 2019; 윤철재 2021)가 있으며, 농촌 주거재생 연구(송길호 2014), 농촌재생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정준용 외 2014)도 존재한다. 특히 농촌재생과 관련된 광범위한 통계자료의 구축이 미흡한 상황에서 농촌재생과 관련된 사례연구가 상대적으로 다소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동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 또한 최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농촌재생과 관련하여 지역진단지표 개발에 공간 빅데이터의 활용하는 시도(장문현 2021), 농촌재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농촌관광 실태 분석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도(박로운·이기훈 2016) 및 뉴스데이터 분석을 통한 농촌이미지 연구(손용훈·김용진 2019) 등이 존재한다. 농촌지역 및 재생에 관한 연구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지역의 재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농촌재생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이슈를 파악한다. 농촌재생에 대한 논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그 수가 부족하며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이슈가 농촌재생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농촌재생과 관련해 사회 전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이슈가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미흡함을 의미한다. 보다 체계적이고 유효한 농촌재생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최근 농촌재생과 관련된 이슈가 어떠한 흐름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적시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농촌재생의 주요 이슈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례연구 중심의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닐 수 있다. 둘째, 뉴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한다. 기존 선행연구의 경우 농촌, 특히 농촌재생과 관련된 논의를 함에 있어 사례 분석을 다수 진행하였다. 물론 농촌지역이 지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일부 사례는 향후 농촌개발 및 재생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연구는 특정 사례만이 지닌 지역적 특수성에 기초한 논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동시에 농촌 및 농촌재생과 관련된 전국적 통계자료의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전국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농촌 및 농촌재생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자료 수집 및 분석이 실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정책적·사회적 차원에서 농촌지역 및 농촌재생과 관련된 이슈가 공유되는 뉴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시점에서 강조되는 이슈를 파악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촌재생이 어떠한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슈와 그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3. 연구설계

본 연구는 농촌재생과 관련 이슈를 확인하고, 그 변화의 흐름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농촌재생과 관련된 뉴스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한다. 빅데이터란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 및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산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과 그 데이터 자체"(임화진·박성현 2015: 77)를 의미한다.

다양한 빅데이터 자료 중 뉴스의 경우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와 달리 개인의 관심정보가 아닌 보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수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자료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역과 산업 등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김현지 외 2020), 실제 다양한 사건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가 뉴스를 통해 제공되는 만큼, 특정 주제의 이슈 파악과 그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활발히 활용된다(차민경 2015; 안지현 2018; 손용훈·김용진 2019; 최원주·홍장선 2021).

본 연구에서도 농촌재생과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최근 5년간 축적된 뉴스 자료를 활용하며, 이때 분석에 필요한 자료 검색을 위해 '농촌재생'을 키워드로 설정하였다. 이슈의 변화 흐름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는 1년 단위로 나누어 수집한다. 구체적인 자료수집의 시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로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기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내용상 중복되는 자료는 제거하고, 형태소 분석은 고유명사, 복합명사를 그대로 결괏값에 반영하는 Espresso K 분석기를 활용하여 명사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제하였다. 이후 확보된 자료를 확인하여 동사, 영어, 숫자, 무의미한 단어를 제거하는 정제과정을 거쳤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16년 자료 718개, 2017년 자료 783개, 2018년 자료 885개, 2019년 자료 989개, 2020년 자료 1,314개로 총 원자료 4,689개를 활용하였다.[2]

---

2 자료의 수집·정제 및 분석을 위하여 텍스톰(TEXTOM)과 유씨넷(UCINET)을 활용한다. 먼저 텍스톰의 경우, "web상의 다양한 데이터를 채널별로 자동 수집하여 정제, 매트릭스 생산까지 일괄 처리해주는 데이터 처리 솔루션"(박상훈·이희정 2017: 91-92)이며, 이미 한국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는 빅데이터 분석에 다수 활용되고 있다(차민경 2015; 박상훈·이희정 2017; 조성환 2018; 지동철 외 2020). 우선 텍스톰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유씨넷에서 네트워크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

4. 분석 결과

4.1. 빈도 분석

최근 5년간 농촌재생과 관련된 주요한 키워드들에 대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2016년에는 농촌재생과 관련하여 사업, 신재생에너지, 육성, 선정, 활성, 태양광, 보급, 지원, 추진, 농촌 등의 키워드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농촌을 배경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태양광 보급 사업이 추진되며 관련 키워드가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부각되면서 농촌재생과 관련된 기사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가 되었다. 또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업, 확대, 보급, 활성, 추진, 정부, 정책, 지원 등의 키워드가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재생의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2018년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단어의 빈도수가 다소 낮아졌으며, 농촌, 경북, 주민, 농업, 지역과 같은 키워드가 높은 빈도를 나타내게 된다. 2016년과 2017년에 비해 2018년부터 지역과 주민, 농촌재생, 주요 산업인 농업 등 농촌지역과 밀접한 키워드가 부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는 농촌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농촌재생, 농업, 지역 등의 단어도 주요한 키워드로 언급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언급되는 신재생에너지의 빈도 역시 높으며, 사업, 추진, 선정, 농식품부 등 정부의 역할 또한 꾸준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농촌지역의 유휴시설 활용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인 전라북도의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관련 키워드 역시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과거 4년에 비해 다소 변화된 흐름을 보인다. 여전히 추진, 사업, 지원, 확대, 조성 등 정부의 역할은 크지만, 농촌, 지역, 토론회, 일자리, 생활 등의 키워드가 높은 수준의 빈도수를 보이게 된다. 또한 기존 연도들에 비해 주요 키워드의 빈도수가 특히 더 높게 나타난

여 유씨넷으로 데이터를 분석한다. 유씨넷의 경우 데이터들 간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키워드들의 중심성 정도와 군집을 확인하는 CONCOR 분석 등을 통해 주요 이슈와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각화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넷드로(NetDraw)를 사용한다.

다. 태양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정책의 대상지역으로만 역할을 하던 농촌과 관련해 지역, 토론회, 일자리, 생활, 귀농귀촌 등의 단어가 점차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게 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표 1. 빈도 분석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사업	196	신재생에너지	466	사업	298	농촌	312	농촌	762
신재생에너지	193	태양광	449	농촌	265	사업	301	추진	398
육성	106	사업	264	추진	198	추진	247	농업	348
선정	103	확대	200	활성	149	신재생에너지	179	농촌재생	329
활성	96	보급	187	경북	143	선정	155	사업	267
태양광	84	활성	169	주민	135	농촌재생	140	지원	222
보급	79	추진	154	선정	133	농업	134	확대	167
지원	79	정부	137	농촌재생	132	농식품부	130	활성	167
추진	77	농촌	110	농업	130	활성	130	조성	159
농촌	71	정책	103	신재생에너지	116	개최	124	재생	159
개발	70	지원	99	지역	100	공모	122	지역	144
도시재생	68	방안	93	도시재생뉴딜	100	지역	114	토론회	139
조성	68	도시	84	개최	87	프로젝트	113	일자리	137
주민	65	농업	81	재생	84	재생	111	구축	137
활용	64	지역	79	공모	83	햇살가득	103	협약	137
마을	60	필요	78	도시	78	구축	100	농촌지역	133
전남	58	발전	74	미래	76	진행	99	프로젝트	128
참여	56	에너지	69	조성	75	포럼	90	체결	113
체험	53	발표	67	행복씨앗마을	73	재생에너지	89	개최	109
도시	52	계획	66	마을	71	태양광	85	공모	108
지역	50	마을	65	일자리	71	정부	84	미래	107
농업	47	개최	61	태양광	70	확대	81	생활	104
에너지	46	한국에너지공단	59	확대	64	주민	80	농식품부	104
분야	45	활용	58	창출	63	주제	78	귀농귀촌	102
구축	45	설치	53	연계	63	강화	73	사회	99
고령	43	전략	52	교육	61	조성	73	뉴딜	96
농촌진흥청	42	참여	50	보급	59	마을	71	재생에너지	96
제시	42	재생에너지	50	계획	57	보급	68	햇살가득	95
한전	41	운영	50	지원	56	홍성군	68	연계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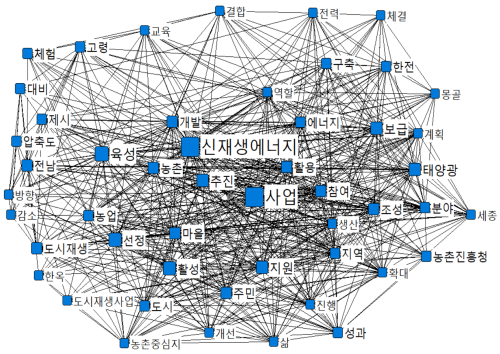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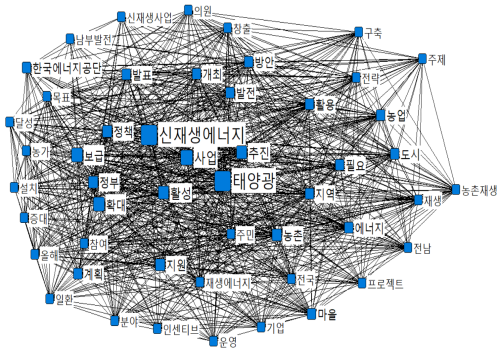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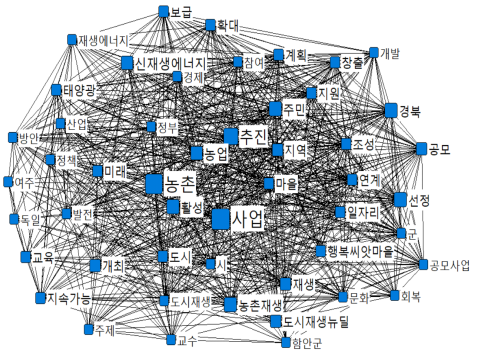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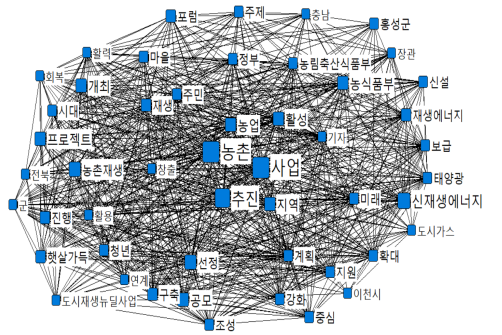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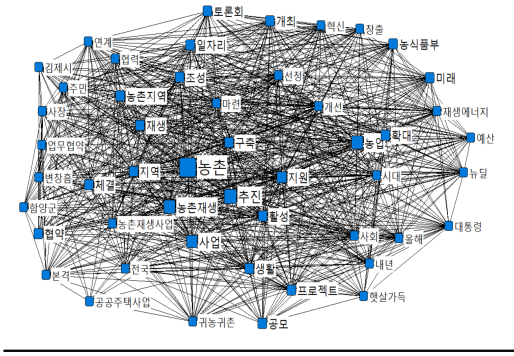
(계속)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대비	41	일환	49	지속가능	55	계획	66	마련	92
압축도시	39	의원	48	문화	53	시대	65	올해	91
성과	39	농가	48	도시재생	53	청년	64	내년	83
생산	38	전국	47	경제	51	미래	64	선정	83
교육	36	주민	45	교수	50	신설	63	개선	83
역할	35	주제	45	공모사업	50	지원	62	본격	82
결합	35	증대	44	산업	49	중심	61	전국	81
진행	35	재생	44	회복	48	농림축산식품부	60	사장	80
방향	35	신재생사업	41	시	47	전북	58	혁신	78
세종	35	올해	40	정책	46	도시재생뉴딜사업	56	예산	78
감소	34	기업	39	재생에너지	46	기자	54	주민	78
체결	34	프로젝트	38	여주	45	충남	53	김제시	77
도시재생사업	33	달성	36	개발	45	도시가스	52	농촌재생사업	77
삶	33	분야	35	발전	45	장관	50	대통령	76
개선	33	전남	35	참여	43	연계	50	업무협약	74
한옥	32	창출	34	군	43	활용	48	함양군	73
계획	31	농촌재생	34	함안군	42	이천시	48	협력	71
몽골	31	목표	34	주제	42	회복	48	공공주택사업	69
전력	30	남부발전	34	방안	41	활력	47	변창흠	69
농촌중심지	30	구축	34	독일	41	군	47	시대	68
확대	30	인센티브	33	정부	41	창출	46	창출	68

이상 50개 키워드들에 대한 관계를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다. 빈도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2016년과 2017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태양광, 육성, 활성 등의 키워드가 빈도수가 특히 높았고 전체적인 키워드들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2018년 다소 변화하는데, 농촌이라는 키워드의 빈도수가 급증하였다. 또한 농촌재생이라는 키워드의 빈도수 또한 증가하였다. 이전에는 농촌재생보다는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의 빈도수가 높았던 것과 달리 2018년부터는 농촌재생과 관련된 기사에서 직접적인 언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북도의 행복씨앗마을과 같은 농촌마을재생 사업의 시작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일부 후보자의 공약에 농촌재생이 언급된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키워드 역시 2019년까지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2020년이 되면서 주요 키워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특히 농촌, 지역, 일자리,

생활 등의 주민 생활과 밀착되는 키워드의 빈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결과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4.2. 중심성 분석

본 연구는 농촌재생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들에 대하여 중심성 지수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중 2016년과 2020년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한다(<표 4> 참고. 2017~2019년 자료는 <부록> 참고). 중심성은 "주요 키워드 간의 관계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지표"(김대욱 2015: 111)로, 특히 기존 선행연구에서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주로 활용되는 연결중심성(degree centerality)과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을 활용하였다(김대욱 2015; 반현정·전재균 2019). 연결중심성은 "핵심적인 행위자 혹은 쟁점이 중앙에 위치하는 정도를 의미"(배정아 2014: 217)하는 개념으로, 이때 노드에 연결된 다른 노드의 수가 많을수록 연결중심성은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한 노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웃 노드의 수를 네트워크 노드의 크기로 표준화한 값"(임성민·김진흠 2013: 664)이며, i번째 노드의 연결중심성[3]은 다음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C_d(i) = \frac{d_i}{N-1}, i = 1, \dots, N$$

위세중심성은 연결중심성에서 더 나아가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이 되는 노드들과 연결될 경우에 높은 값을 지니는 중심성이다. 관련해서 "인접행렬 $A = (a_{ij})$의 N개 노드에 대하여 각각 $c_i(i = 1, \dots, N)$의 중요도가 부여되었다면 i번째 노드의 위세중심성은 다음과 같다"(임성민·김진흠 2013: 665).

$$C_e(i) = \sum_{j=1}^{N} a_{ij} c_j, i = 1, \dots, N$$

먼저 2016년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 압축도시, 대비, 전남, 고령, 도시재생, 개발, 감소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특히 높은 키워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키워드들이 2016년 농촌재생과 관련된 논의에서 특히 중심에 위치하며 핵심적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

3 N: 네트워크 전체 노드의 수

d_i: i번째 노드의 링크 수, i = 1, ... , N.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와 사업, 육성 등의 키워드가 농촌재생 논의의 핵심에 위치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남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이슈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압축도시 관련 키워드 역시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이는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활성, 보급, 태양광, 방향, 제시, 주민, 한전, 농촌, 추진 등 정부 정책 추진과 관련된 키워드 등이 2016년 농촌재생과 관련된 논의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주요 키워드의 위세중심성을 분석한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육성, 압축도시, 대비, 고령, 전남, 감소, 개발, 도시재생, 제시, 방향, 신재생에너지, 사업, 선정, 활성, 태양광, 한옥, 보급, 조성, 활용, 추진 등 주로 정부 정책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농촌재생 논의의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특히 높은 영향력을 지니는 키워드들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의 주요 키워드들에 대한 중심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6년의 분석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연결중심성을 살펴보면, 농촌, 농업, 추진, 농촌재생, 사업, 재생, 확대, 일자리, 지원, 조성, 구축, 농촌지역, 미래, 협약, 활성, 토론회, 사회, 생활, 체결, 뉴딜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특히 높은 키워드로 분석되었다. 해당 키워드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2016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키워드들, 예를 들어 추진, 사업, 지원, 협약, 체결, 뉴딜 등이 높은 연결중심성을 지니며 농촌재생과 관련된 논의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20년의 경우 본 연구의 핵심 키워드인 농촌재생이라는 키워드가 논의의 중심으로 떠올랐으며, 동시에 재생, 일자리, 농촌지역, 생활 등 지역단위,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와 관련된 키워드들 또한 논의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0년 주요키워드의 위세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농촌, 농업, 추진, 재생, 확대, 사업, 농촌재생, 미래, 일자리, 토론회, 지원, 재생에너지, 조성, 뉴딜, 혁신, 사회, 활성, 구축, 생활, 대통령 등의 키워드가 관련 논의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는 키워드들과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중심성 분석 결과

2016년					2020년				
키워드	연결	순위	위세	순위	키워드	연결	순위	위세	순위
사업	701	2	0.120	12	농촌	4845	1	0.551	1
신재생에너지	829	1	0.152	11	추진	2051	3	0.271	3
육성	693	3	0.383	1	농업	2181	2	0.353	2
선정	319	16	0.096	13	농촌재생	1740	4	0.184	7
활성	389	11	0.085	14	사업	1484	5	0.188	6
태양광	357	13	0.070	15	지원	1085	9	0.139	11
보급	373	12	0.059	17	확대	1147	7	0.191	5
지원	231	22	0.046	21	활성	876	15	0.112	17
추진	242	20	0.046	20	조성	996	10	0.121	13
농촌	243	18	0.043	25	재생	1267	6	0.237	4
개발	447	9	0.238	7	지역	600	25	0.090	23
도시재생	448	8	0.237	8	토론회	864	16	0.140	10
조성	209	24	0.051	18	일자리	1095	8	0.154	9
주민	250	17	0.044	24	구축	920	11	0.109	18
활용	240	21	0.049	19	협약	880	14	0.095	22
마을	191	26	0.042	26	농촌지역	901	12	0.099	21
전남	455	6	0.310	5	프로젝트	607	23	0.063	37
참여	204	25	0.039	27	체결	656	19	0.065	35
체험	226	23	0.044	23	개최	398	47	0.055	39
도시	134	41	0.028	39	공모	520	29	0.047	46
지역	171	33	0.036	28	미래	899	13	0.172	8
농업	158	34	0.032	32	생활	662	18	0.106	19
에너지	186	29	0.034	30	농식품부	508	34	0.073	31
분야	189	27	0.045	22	귀농귀촌	600	25	0.080	24
구축	136	40	0.027	41	사회	702	17	0.112	16
고령	452	7	0.329	4	뉴딜	642	20	0.120	14
농촌진흥청	90	48	0.025	43	재생에너지	604	24	0.125	12
제시	338	15	0.221	9	햇살가득	492	35	0.044	47
한전	243	18	0.036	29	연계	623	22	0.067	32
대비	476	5	0.351	3	마련	465	39	0.065	34
압축도시	482	4	0.356	2	올해	471	38	0.073	29
성과	142	37	0.028	37	내년	529	28	0.073	30
생산	150	36	0.033	31	선정	421	45	0.063	36
교육	184	30	0.032	33	개선	512	33	0.074	27
역할	152	35	0.027	40	본격	455	40	0.053	41

(계속)

2016년					2020년				
키워드	연결	순위	위세	순위	키워드	연결	순위	위세	순위
결합	175	32	0.028	38	전국	423	44	0.047	45
진행	78	50	0.013	50	사장	515	30	0.050	44
방향	343	14	0.218	10	혁신	626	21	0.119	15
세종	137	39	0.030	34	예산	448	41	0.056	38
감소	397	10	0.296	6	주민	482	36	0.066	33
체결	119	46	0.017	49	김제시	514	31	0.055	40
도시재생사업	90	48	0.019	48	농촌재생사업	356	48	0.035	48
삶	120	45	0.023	45	대통령	579	27	0.104	20
개선	138	38	0.029	35	업무협약	346	49	0.034	49
한옥	125	43	0.061	16	함양군	436	42	0.076	26
계획	132	42	0.023	47	협력	412	46	0.051	42
몽골	181	31	0.026	42	공공주택사업	319	50	0.030	50
전력	188	28	0.029	36	변창흠	513	32	0.050	43
농촌중심지	112	47	0.023	46	시대	431	43	0.073	28
확대	125	43	0.024	44	창출	480	37	0.077	25

주: 2017년, 2018년, 2019년 분석 결과는 <부록> 참조.

4.3. CONCOR 분석

CONCOR 분석은 반복적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키워드를 집단화하는 방법이다. CONCOR 분석의 경우 수렴상관관계 분석으로 설명되기도 하며,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한다. CONCOR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상 노드들의 유사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분할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노드들이 모이는 군집의 수가 달라지며,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고 다만 연구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며(이수상 2012; 김영욱 외 2017), 연구마다 CONCOR 분석의 분할 횟수는 각기 다르다. 본 연구의 경우 3회 분할 시에 그 외 경우에 비해 보다 명확한 군집을 도출해낼 수 있었으며, 그 외의 분할을 시도하였을 때는 설명 가능한 충분한 군집이 구성되지 않았다. 이에 3회 분할 결과를 토대로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3회 분할 시 총 7개의 군집이 도출되었으며, 이들이 다시 두 번째 차원에서 서로 인접하여 총 4개의 이슈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역정책에 대한 이슈에 해당되는 키워드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

히 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농촌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 있었는데, 선정, 성과, 활용, 개선, 지역, 사업, 마을, 도시재생사업, 농촌중심지, 진행, 조성, 도시, 추진, 구축, 지원, 활성 등의 단어가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주민, 생산, 참여, 확대, 농촌진흥청, 세종 등의 단어가 두 번째 군집을 형성하며 앞선 첫 번째 군집과 함께 두 번째 차원에서 서로 인접한 군집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에너지 및 농촌활성과 관련된 이슈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촌단위의 태양광 보급 사업과 관련해 관련 키워드들이 세 번째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계획, 전력, 한전, 분야, 보급, 체결, 에너지, 한옥, 삶, 몽골 등의 키워드가 군집을 형성하였다. 이와 함께 농촌, 농업, 교육, 체험, 결합, 역할 등 농촌과 관련된 키워드가 두 번째 차원에서 서로 인접한 군집을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농촌활성의 경우 체험, 교육 등에 그쳐 자생적 활성화를 위한 논의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개발, 육성 키워드가 하나의 이슈를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그룹으로 묶였으며, 이외에도 고령화, 농촌공동화 등 농촌이슈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기타 군집을 형성하여 서로 인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 그룹의 경우, 키워드가 서로 뚜렷한 동일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농촌재생과 관련된 이슈들을 설명하는 데 자주 활용되며 군집을 이룬 것으로 추측된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기타로 명명하고자 한다.

한편 도시재생사업과 별개로 도시재생 자체는 개별 이슈가 되었다. 앞서 논의한 도시재생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유추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지역개발정책 이슈로 분류가 가능한데, 특히 선정, 활용, 성과, 추진, 구축, 지원 등과 함께 분류된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지역 정치·행정 영역에서 농촌재생을 위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사업화 혹은 정책화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순히 필요성이나 사례를 언급하는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지역개발정책 영역에서 주로 언급되는 선정, 성과, 활용, 개선 등의 단어와 관련성이 떨어지고 개별적인 이슈로서 농촌재생과 함께 언급되는 정도로 그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룬 농촌재생이라는 키워드가 정책적 차원에서 보다 활발히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도시재생 논의는 다른 키워드와의 연관성이 낮을 수 있다.

그림 6. CONCOR 분석 결과 시각화(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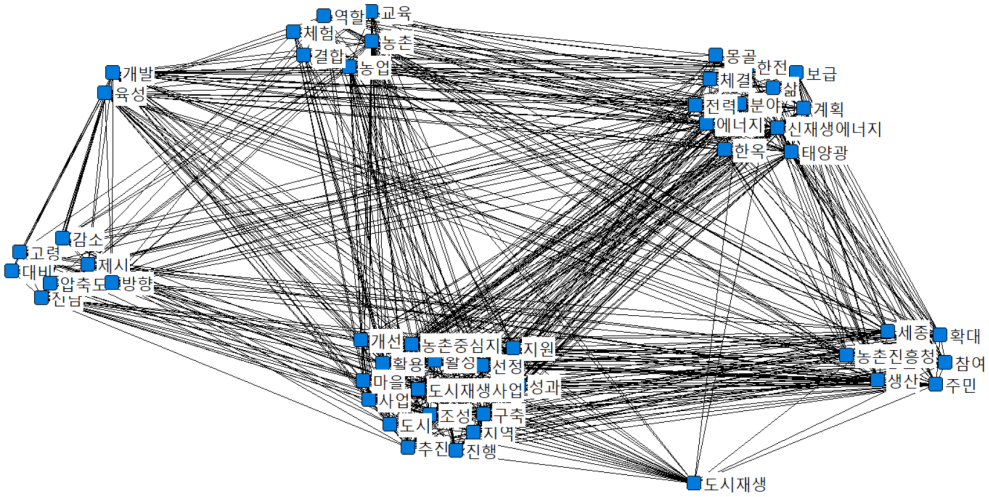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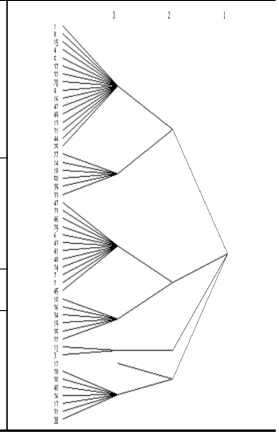


표 6. CONCOR 분석 결과(2016년)

	키워드	이슈	계층도
1	선정, 성과, 활용, 개선, 지역, 사업, 마을, 도시재생사업, 농촌중심지, 진행, 조성, 도시, 추진, 구축, 지원, 활성	지역개발 정책	
2	주민, 생산, 참여, 확대, 농촌진흥청, 세종		
3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계획, 전력, 한전, 분야, 보급, 체결, 에너지, 한옥, 삶, 몽골	에너지·농촌활성	
4	농촌, 농업, 교육, 체험, 결합, 역할		
5	개발, 육성	개발·육성	
6	고령, 전남, 방향, 감소, 제시, 대비, 압축도시	기타	
7	도시재생		

한편 이러한 키워드 군집 형태는 2020년에 다소 변화한다. 우선 농촌지역 이슈가 다양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농촌, 지역, 주민, 뉴딜, 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키워드가 군집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농업, 사회, 혁신, 미래, 시대, 개최, 일자리, 토론회, 창출 등의 키워드 또한 군집을 이루며 함께 농촌지역 이슈로 구분될 수 있었다. 2016년에도 사업, 선정, 성과, 주민, 참

여 등이 지역정책 이슈로 묶일 수 있었으나 이는 농촌을 중심으로 하기보다 지역개발정책 차원에서 논의되는 키워드들이었다. 반면 2020년에는 농촌, 지역, (농촌)뉴딜, 재생, 혁신, 미래, 일자리 등 보다 다양한 농촌지역 중심의 키워드들이 인접 군집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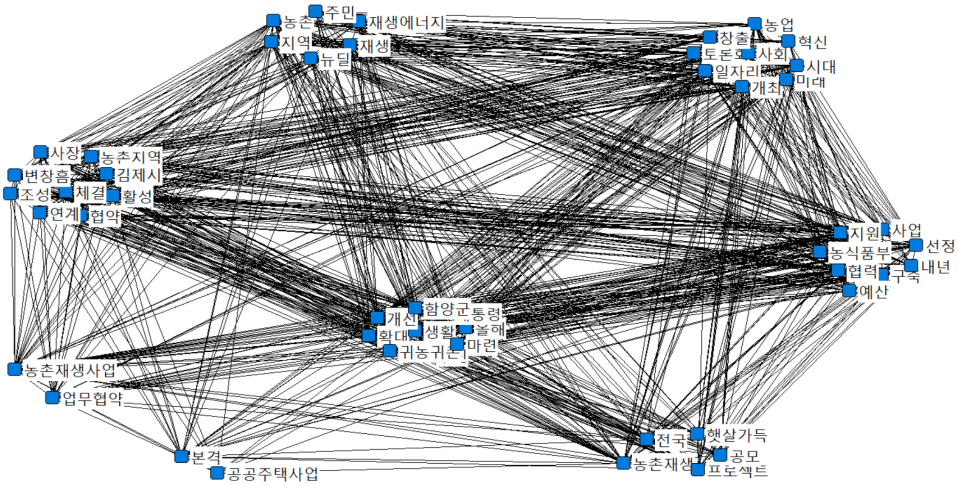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귀농귀촌, 생활, 개선, 확대, 올해, 추진, 마련, 대통령, 함양군 등의 키워드가 군집을 이루고 지원, 사업, 농식품부, 예산, 선정, 협력, 구축, 내년 등의 키워드가 군집을 이루며 인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키워드들은 지자체를 비롯해 정부의 농촌재생정책과 관련 방향성을 보여주며, 이에 농촌재생정책 이슈로 묶일 수 있다. 특히 해당 키워드 군집은 함양군을 포함하고 있는데, 농촌재생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2019년 11월 함양군의 농촌유토피아 사업으로 서하초학생모심위원회가 구성되어 폐교 위기에 놓인 지역학교를 살리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택 및 일자리 제공, 장학금 지원 등 귀농·귀촌 지원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2020년에는 함양군, LH,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 기관이 함께 농촌유토피아 사업의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농촌지역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농촌재생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2020년 11월에는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공간으로서 농촌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촌생활 및 환경에 대한 개선 차원에서 농촌재생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언급을 하며 관련 키워드의 중요성 및 연관성이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촌재생, 햇살가득, 전국, 공모, 프로젝트가 하나의 군집을 이루며 동시에 공공주택사업, 본격이 인접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농촌재생수요 이슈로 묶일 수 있는데,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와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언급이 증가하면서 관련 키워드들이 군집을 이룬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농촌재생과 관련해 귀농귀촌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사업 등은 이주 기반 농촌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농촌으로 이주하고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안정적인 주거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은 관련 정책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활성, 체결, 조성, 연계, 농촌지역, 협약, 사장, 김제시, 변창흠 등의 키워드가 군집을 이루었으며 동시에 농촌재생사업, 업무협약 등의 키워드가 인접하였다. 이는 농촌재생행정 이슈로, 농촌재생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적 키워드가 군집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즉, 해당 키워드들은 당시 정책적 변화, 특히 농촌지원 및 농촌재생과 관련된 정책수행과 연관성을 지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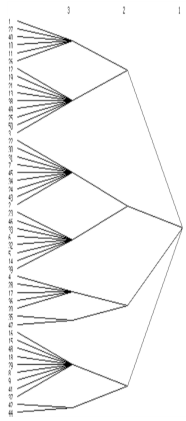
다. 2020년 말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였고, 국토교통부와 LH 등 지역개발 관련 기관이 농촌지역의 재생과 관련해 업무협약[4]을 추진하였다. 예로 김제시의 경우에는 LH, 전북연구원과 함께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투자선도지구 공동조성 및 임대주택건설 등의 사업 추진을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김제시는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공모사업 등을 유치하여 농촌지역 재생을 위한 정책 추진을 실시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당시 특징들이 해당 키워드의 빈도수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서로 인접한 군집을 형성하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CONCOR 분석 결과 시각화(2020년)



4 이투데이. 2020. 11. 23. “LH, 김제시 혁신클러스터 조성 통한 농촌재생 협약 체결.”(https://www.etoday.co.kr/news/view/1965579, 검색일: 2021.12.01).

표 7. CONCOR 분석 결과(2020년)

키워드		이슈	계층도
1	농촌, 지역, 주민, 뉴딜, 재생, 재생에너지	농촌지역 이슈	
2	농업, 사회, 혁신, 미래, 시대, 개최, 일자리, 토론회, 창출		
3	귀농귀촌, 생활, 개선, 확대, 올해, 추진, 마련, 대통령, 함양군	농촌재생 정책	
4	지원, 사업, 농식품부, 예산, 선정, 협력, 구축, 내년		
5	농촌재생, 햇살가득, 전국, 공모, 프로젝트	농촌재생 수요	
6	공공주택사업, 본격		
7	활성, 체결, 조성, 연계, 농촌지역, 협약, 사장, 김제시, 변창흠	농촌재생 행정	
8	농촌재생사업, 업무협약		

5. 결론

오늘날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고령화, 공동화, 산업활력 감소, 노후화 등 다양한 이슈를 내포한다. 동시에 신산업분야인 스마트팜, 귀농·귀촌을 통한 새로운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 지역공동체의 활용 등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농촌지역을 둘러싼 이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파악과 관련 정책의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과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지역기반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낙후된 농촌지역의 재생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재생이 지니는 중요성에 주목하고, 관련 논의가 최근 5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 특히 2016년과 2020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농촌재생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된 키워드는 사업, 신재생에너지, 육성, 선정, 활성, 태양광 등이었다. 정부 중심의 농촌 활성화 사업,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루

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말했을 때, 농촌재생보다는 농촌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재생이슈,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논의에 그칠 뿐이다. 다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농촌재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과 이로 인한 주요 키워드에 변화가 나타나며 2020년에는 추진, 사업, 지원, 확대, 조성 등 정부사업과 관련된 키워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토론회, 일자리, 생활 등의 키워드의 빈도수가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심성 분석 결과, 2016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 압축도시, 대비, 전남, 고령, 도시재생, 개발, 감소 등의 키워드들이 연결중심성이 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대적으로 농촌재생과 관련된 논의가 신재생에너지, (정부)사업, 개발, 압축도시와 같이 정부활동과 관련된 키워드들 중심으로 연관성을 지니며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세중심성 분석 결과에서도 육성, 압축도시, 대비, 고령, 전남, 감소, 개발, 도시재생, 제시, 방향, 신재생에너지, 사업, 선정, 활성, 태양광 등 주로 정부 정책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농촌재생 논의에서 특히 높은 영향력을 지니는 키워드들과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의 경우 중심성 분석 결과에서도 다소 변화가 나타난다. 2020년을 기준으로 키워드 네트워크에서의 연결중심성을 살펴보면, 농촌, 농업, 추진, 농촌재생, 사업, 재생, 일자리, 지원, 농촌지역, 미래, 협약, 토론회, 사회, 생활, 뉴딜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로 분석되었다. 해당 키워드들은 앞서 살펴본 2016년 중심성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과 관련성이 높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핵심 키워드인 농촌재생이라는 키워드가 논의의 중심으로 떠올랐으며, 이와 함께 재생, 일자리, 농촌지역, 생활 등 지역단위,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와 관련된 키워드들 또한 논의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주요 키워드의 위세중심성 분석 결과에서도 농촌, 농업, 추진, 재생, 확대, 사업, 농촌재생, 미래, 일자리, 토론회, 지원, 재생에너지, 조성, 뉴딜, 혁신, 사회, 활성, 구축, 생활, 대통령 등의 키워드가 관련 논의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는 키워드들과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CONCOR 분석 결과, 2016년과 2020년의 키워드 군집에서 다소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2016년 자료에 대한 CONCOR 분석 결과, 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농촌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하나의 군집을 이루어 지역개발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에너지 및 농촌활성과 관련된 이슈가 존재했으며, 농촌단위의 태양광 보급사업과 관련된 키워드들의 군집과 농촌 관련 체험, 교육 등을 통한 농촌활성이슈가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개발, 육성 키워드의 군집과 고령화, 농촌공동화 등으로 인한 압축도시 등 농촌 이슈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군집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20년의 경우에는 키워드들의 군집 및 이슈가 다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촌, 지역, 주민, 뉴딜, 재생, 에너지 등의 키워드가 군집을 형성하였고, 동시에 농업, 사회, 혁신, 미래, 시대, 개최, 일자리, 토론회, 창출 등의 키워드 또한 군집을 이루며 서로 인접하게 위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귀농귀촌, 생활, 개선, 대통령, 농식품부, 예산, 협력 등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의 농촌재생정책과 관련 방향성을 보여주는 키워드의 군집이 나타났으며, 농촌재생, 햇살가득, 프로젝트, 공공주택사업 등 농촌재생수요와 관련되는 이슈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농촌재생정책을 추진하는 데 수반되는 행정적 키워드, 예를 들어 체결, 조성, 연계, 협약 등의 키워드들도 군집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러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0년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빈도수가 높아진 키워드 및 이들의 군집은 2016년에 비해 전혀 새로운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과거부터 일자리, 귀농·귀촌 등의 키워드는 꾸준히 중요성이 컸으며 농촌과 관련된 정책영역에서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왔다. 다만 최근에 정책적 차원에서 보다 활발히 논의되며 빈도수가 증가하고 군집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이는 농촌재생과 관련된 이슈 다양화라기보다 일부 영역의 정책적 중요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또한 군집은 키워드 간 상대적인 연관성 정도에 기초한다. 즉, 군집이 다르다 하여 키워드 간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함양군의 농촌 유토피아 사업 사례에서도 지자체와 유관 기관의 협약 체결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창업 및 일자리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된 키워드는 본 연구에서도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군집 분석 결과에서는 그 외 농촌재생 이슈의 키워드들과도 영향관계를 형성해 서로 다른 군집에 배치되었다. 따라서 군집은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키워드들의 집합으로 이해하되, 서로 다른 군집 간·키워드 간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농촌재생 혹은 농촌 활성화에 있어 다양한 부처 및 관련기관의 역할 제고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2016년에 비해 2020년 국토교통부, LH,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 기관의 협업 및 사업 추진 등과 관련된 키워드가 빈도수 증가 및 관련 키워드들과 군집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재생은 지역의 물리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의 개발 및 활용, 문화·

관광 측면에서의 접근,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해야 할 영역으로, 향후 농촌재생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및 연계, 사업의 확대는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농촌재생과 관련된 논의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논의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동안 농촌재생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주거재생(송길호 2014), 관련 법·제도의 개선(정준용 외 2014), 농촌재생 국내외 사례연구(이도석 2014; 이태겸·정남식 2019; 윤철재 2021) 등이 다수였다. 농촌지역, 특히 농촌재생과 관련된 전국 단위의 광범위한 통계자료의 구축이 미흡한 상황에서 농촌재생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시도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지닐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 2016년과 2020년 사이에 농촌재생과 관련된 뉴스 빅데이터에서 다소 변화가 파악되었다. 2016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과 관련된 키워드들의 빈도, 중심성 등이 높게 관찰되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정부사업과 관련된 키워드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나 최근 들어 농촌뉴딜과 함께 정책적 차원에서 보다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이들 간의 중심성과 군집 또한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농촌재생의 이슈가 최근 5년간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정책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가 증대된 것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의 자생력이 증가하였는가에 대한 논의는 추가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지난 5년간의 농촌재생과 관련된 이슈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다. 여론 데이터 중심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분석 방법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농촌정책의 변화 흐름을 모두 아우르는 거시적 연구일 수는 없다. 다만, 현시점에서 농촌재생과 관련한 주요 이슈가 최근 5년 동안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이슈들 간의 연결은 어떠했는지를 통해 농촌재생이 지니는 중요성과 변화의 흐름을 일부분이나마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농촌재생이라는 키워드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성을 타진하는 데 일부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농촌재생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부의 정책적·실무적 차원에서, 특히 최근에 활용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학술적 차원에서 농촌재생이라는 키워드의 활용이 비교적 미미했다는 점, 그리고 농촌지역 재생 등 다양한 단어가 혼용되어 사용된다는 점 등은 본 연구가 주목한 '농촌재생'이라는 키워드의 활용 자체를 염려케 한다. 그

러나 농촌지역의 재생,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현 정부의 정책적 기조와 별개로 과거부터 광범위한 영역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농촌재생을 키워드로 언론의 자료를 토대로 지난 5년간 관련 주요 이슈가 어떠한 흐름을 보이며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는 농촌재생이라는 화두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학술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단어 및 영역에 대한 탐색적인 접근에 그친다. 이는 본 연구의 명백한 한계임을 밝히며 추후 연구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축적된 자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토대로 보완·발전되어야 할 사항이다. 둘째, 본 연구는 농촌정책이라는 다방면의 정책적 접근과는 맥락을 달리한다. 농촌정책은 농업진흥, 농촌관광, 귀농·귀촌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춘 농촌재생은 이러한 농촌정책의 일부분인 농촌지역의 재활성화와 관련되며, 또한 정책 분석보다는 키워드분석을 통한 이슈 파악에 집중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농촌재생 정책 분석을 통해 더 깊은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키워드 분석에서 우려되는 바는 단어분절로 인한 데이터의 정확성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농촌재생이라는 키워드 역시 농촌과 재생이라는 키워드의 결합이며, 이때 농촌 신재생에너지, 농촌 주거재생 등의 논의가 혼입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농촌재생의 개념이 농촌지역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을 재활성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이슈들은 직간접적으로 농촌재생과 연관성을 지닐 수 있다. 향후 농촌재생과 관련된 보다 많은 논의들이 축적되었을 때, 데이터의 범위를 좁혀 분석을 한다면 논의의 의의를 보다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 중심성 분석 결과(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8년				
키워드	연결	순위	위세	순위	키워드	연결	순위	위세	순위	키워드	연결	순위	위세	순위
신재생에너지	2791	2	0.467	2	사업	1725	1	0.481	1	농촌	1817	1	0.384	1
태양광	2999	1	0.491	1	농촌	1060	2	0.230	4	사업	1443	2	0.348	2
사업	1651	3	0.318	3	추진	908	3	0.275	3	추진	1185	3	0.287	3
확대	1471	4	0.298	5	활성	848	4	0.282	2	신재생에너지	875	4	0.202	7
보급	1462	5	0.298	4	경북	735	5	0.220	5	선정	821	6	0.205	6
활성	1103	6	0.183	7	주민	616	7	0.197	9	농촌재생	663	10	0.182	10
추진	798	8	0.136	10	선정	734	6	0.213	6	농업	823	5	0.218	4
정부	945	7	0.191	6	농촌재생	552	9	0.137	16	농식품부	589	13	0.137	15
농촌	518	14	0.046	31	농업	515	12	0.117	18	활성	722	8	0.183	9
정책	754	9	0.139	9	신재생에너지	545	11	0.143	15	개최	492	18	0.100	23
지원	698	10	0.152	8	지역	595	8	0.205	7	공모	649	11	0.178	11
방안	664	11	0.082	15	도시재생뉴딜	546	10	0.199	8	지역	579	14	0.135	16
도시	384	23	0.029	43	개최	254	32	0.056	34	프로젝트	679	9	0.196	8
농업	427	18	0.065	22	재생	361	20	0.105	22	재생	745	7	0.207	5
지역	394	22	0.037	40	공모	457	16	0.162	12	햇살가득	609	12	0.174	12
필요	459	17	0.077	17	도시	345	21	0.106	21	구축	432	19	0.116	18
발전	462	16	0.071	18	미래	403	17	0.075	29	진행	386	24	0.081	32
에너지	548	12	0.110	11	조성	372	19	0.106	20	포럼	411	21	0.080	34
발표	422	20	0.068	19	행복씨앗마을	485	14	0.158	13	재생에너지	566	15	0.144	14
계획	469	15	0.089	13	마을	329	23	0.080	28	태양광	561	16	0.148	13
마을	382	24	0.063	25	일자리	482	15	0.169	11	정부	503	17	0.130	17
개최	338	29	0.061	26	태양광	272	29	0.056	33	확대	394	22	0.102	21
한국에너지공단	525	13	0.097	12	확대	324	24	0.085	26	주민	373	25	0.087	28
활용	231	41	0.021	45	창출	494	13	0.176	10	주제	329	33	0.061	43

(계속)

2017년					2018년					2018년				
키워드	연결	순위	위세	순위	키워드	연결	순위	위세	순위	키워드	연결	순위	위세	순위
설치	379	25	0.080	16	연계	393	18	0.154	14	강화	275	41	0.056	45
전략	301	33	0.039	37	교육	251	33	0.035	44	조성	297	37	0.065	40
참여	342	28	0.067	21	보급	340	22	0.099	23	마을	313	34	0.078	35
재생에너지	281	34	0.055	30	계획	296	28	0.092	25	보급	431	20	0.104	20
운영	378	26	0.061	27	지원	216	39	0.057	32	홍성군	365	27	0.086	29
일환	424	19	0.088	14	지속가능	270	30	0.039	42	계획	343	29	0.088	27
의원	230	42	0.037	39	문화	192	44	0.052	36	시대	312	35	0.073	38
농가	313	30	0.058	29	도시재생	255	31	0.080	27	청년	279	40	0.071	39
전국	268	35	0.045	32	경제	319	26	0.109	19	미래	368	26	0.089	26
주민	201	46	0.031	42	교수	145	50	0.024	50	신설	333	32	0.085	30
주제	200	47	0.016	48	공모사업	298	27	0.097	24	지원	388	23	0.110	19
증대	312	31	0.067	20	산업	207	41	0.031	45	중심	249	45	0.055	46
재생	250	39	0.014	49	회복	235	36	0.074	30	농림축산식품부	225	47	0.052	49
신재생사업	410	21	0.065	23	시	323	25	0.120	17	전북	334	31	0.101	22
올해	220	44	0.045	33	정책	216	39	0.050	38	도시재생뉴딜사업	203	50	0.051	50
기업	356	27	0.065	24	재생에너지	168	46	0.043	41	기자	243	46	0.054	47
프로젝트	158	48	0.023	44	여주	247	34	0.027	49	충남	261	43	0.053	48
달성	227	43	0.044	34	개발	171	45	0.050	37	도시가스	351	28	0.094	24
분야	203	45	0.017	46	발전	232	37	0.038	43	장관	211	48	0.058	44
전남	245	40	0.033	41	참여	243	35	0.070	31	연계	264	42	0.062	41
창출	266	36	0.037	38	군	161	47	0.046	40	활용	211	48	0.062	42
농촌재생	143	50	0.010	50	함안군	158	49	0.030	46	이천시	340	30	0.093	25
목표	254	38	0.044	35	주제	159	48	0.028	47	회복	283	39	0.083	31
남부발전	263	37	0.043	36	방안	193	43	0.047	39	활력	309	36	0.075	37
구축	149	49	0.017	47	독일	225	38	0.027	48	군	257	44	0.076	36
인센티브	308	32	0.060	28	정부	204	42	0.053	35	창출	297	37	0.080	33

참고 문헌

김대욱. 2015.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활용한 「지방행정연구」지의 연구경향 분석.” 『지방행정연구』 제29권 제2호. pp. 107-12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doi.org/10.22783/krila.2015.29.2.107

김영욱, 함승경, 김영지, 최지명. 2017. “사회 쟁점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사드(THADD) 배치 관련 보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중심.”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13권 제4호. pp. 40-91. 한국언론학회.

김정섭, 박시현, 김영단, 임지은. 2011. 『농촌 지역 활성화 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원. 2010. 『지역자활센터의 중간지원조직 역할 연구』.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 연구(1/2차연도)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현지, 김성진, 김한국. 2020. “뉴스 데이터를 활용한 텍스트 감성분석에 따른 지역 산업생태계 위기 예측 -광주 지역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8호. pp. 1-9. 한국콘텐츠학회. http://doi.org/10.5392/JKCA.2020.20.08.001

농림축산식품부. 2021.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박로운, 이기훈. 2016.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농촌관광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7권. pp. 665-679.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박상훈, 이희정. 2017.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영향력 분석 연구.” 『주택도시연구』 제7권 제3호. pp. 85-100. SH도시연구원. http://doi.org/10.26700/shuri.2017.12.7.3.85

박상훈, 이희정. 2018. “소셜 빅데이터를 이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 도출 연구 -서울시 망원시장과 수유시장을 대상으로-.” 『서울도시연구』 제19권 제3호. pp. 1-18. 서울연구원.

박찬숙. 2019. “간호학 학술논문의 주제 분석을 위한 텍스트네크워크분석방법 활용.”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제16권 제1호. pp. 12-24.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https://doi.org/10.16952/pns.2019.16.1.12

반현정, 전재균. 2019.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산의 특급호텔과 비즈니스호텔의 의미연결망 분석에 관한 연구.”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제25권 제1호. pp. 18-28. 한국조리학회. http://doi.org/10.20878/cshr.2019.25.1.003

배정아. 2014. “미국 지방정부 재정위기원인 분석: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3호. pp. 205-22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doi.org/10.22783/krila.2014.28.3.205

손용훈, 김용진. 2019. “인터넷 뉴스 데이터 텍스트 분석을 통해 본 우리나라 농촌다움에 대한 이미지 연구.” 『농촌계획』 제25권 제4호. pp. 13-26. 한국농촌계획학회. http://doi.org/10.7851/Ksrp.2019.25.4.013

송길호. 2014. “농촌지역 주거재생을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학회지』 제15권 제6호. pp. 58-62. 한국건설관리학회.

안지현. 2018.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 이슈에 대한 의미연결망분석: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내 웹 뉴스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30권 제4호. pp. 85-112. 한국지역개발학회.

원지영, 박경열. 2021. “텍스트 마이닝 및 의미연결망 분석을 이용한 지역축제 연구 이슈와 지식구조 분석: 2002~2020년 KCI 사회과학 분야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제33권 제5호. pp. 85-102. 한국관광레저학회.

윤철재. 2021. “지역재생수법으로서의 농촌빈집활용의 가능성-일본의 민간과 공공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지』 제16권 제1호. pp. 21-24. 한국주거학회.

이도석. 2014. 『한국 새마을운동과 선진국 농촌지역개발 관련 운동과의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이명기, 정진호, 한이철, 성주인, 김정섭, 황윤재, 김태훈, 정학균, 서대석, 김성우, 임소영, 엄진영, 김미복, 정도채. 2021. “2021년 10대 농정이슈.” 『농정포커스』 196호. pp. 1-16.

이미홍, 최상희, 배진원, 권영환, 한현동, 정승태. 2021. 『농촌 맞춤형 지역재생 사업모델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이소영, 오은주, 이희연. 2012. 『지역쇠퇴분석 및 재생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수상. 2012.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논형.

이진희, 임상연, 정윤희, 박민숙. 2020. 『도시재생뉴딜 정책평가와 지속가능한 추진 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이태겸, 정남식. 2019.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본 지역재생사업의 성과와 제안 - 금산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1권 제2호. pp. 159-176. 한국지적정보학회. http://doi.org/10.46416/JKCIA.2019.08.21.2.159

이호. 2018. “빅데이터로 본 스마트시티: 뉴스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KISDI STAT Report』. 제18권 제23호. pp.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성민, 김진흠. 2013. “사회 네트워크 분석으로 본 수강신청 행태.” 『응용통계연구』 제26권 제4호. pp. 661-674. 한국통계학회.

임화진, 박성현. 2015.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역미래전략 수립에 관한 시론적 연구: SNS 및 언론기사 분석을 통하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7권 제1호. pp. 75-90. 한국지적정보학회.

장문현. 2021. “농촌의 다원적 재생을 위한 지역진단지표 개발 및 적용 연구: 공간빅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7권 제2호. pp. 199-214. 한국지역지리학회지. http://doi.org/10.26863/JKARG.2021.5.27.2.199

정준용, 김상철, 문진우, 박형근, 윤준선. 2014. “우리나라 농촌 활성화를 위한 법 구성에 관한 기초연구.” 『부동산학보』 제58권. pp. 169-179. 한국부동산학회.

조성환. 2018.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블록체인 트렌드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제11권 제5호. pp. 550-555.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

지동철, 김상호, 지창진. 2020. “노인운동 관련 신문 기사의 키워드 네트워킹 분석.”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3권 제4호. pp. 97-109.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http://doi.org/10.19051/kasel.2020.23.4.97

차민경. 2015. “국내 언론에 나타난 ‘예술경영’ 관련 이슈의 의미연결망 분석-1990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일간지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제29권 제2호. pp. 168-2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http://doi.org/10.16937/jcp.29.2.201508.168

최원주, 홍장선. 2021. “코로나19에 대한 국내 언론보도 검색키워드 패턴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29권 제2호. pp. 29-58.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http://doi.org/10.23875/kca.29.2.2

최종희. 2013. 『문화재형 지역재생 정책환경 조성연구』. 문화재청.

이투데이. 2020. 11. 23. “LH, 김제시 혁신클러스터 조성 통한 농촌재생 협약 체결.” <https://www.etoday.co.kr/news/view/1965579>. 검색일: 2021. 12. 1.

원고 접수일: 2021년 8월 9일
원고 심사일: 2021년 8월 27일
심사 완료일: 2021년 12월 21일